

From: Kari Rittenbach
Date: May 26, 2015 10:58:23 PM GMT+02:00
To: Nina Canell
Cc: Hyunjin Kim, 전효경

Before the more common use of satellites, official communication was buried below sea-level, and thus not visible beyond a lantern fish's-eye view. If it had once been possible to intercept a semaphore message by spying on those flagged positions projected from a signaling source—through deviant acts of looking, by agents outside the intended purview—then, conversely, “crossed wires” and other accidents hampering the sender-receiver vector in telegraphy lacked an explicit visual component. For today's fiber-optic web of Internet tubes, polyethylene protective yarn has replaced gutta-percha latex as a means of deterring damage due to (among other hazards) inquisitive shark bites. Yet the drama of interspecies aquatic terrorism does not account entirely for minced, “imperfect” meanings—electromechanical or otherwise. To this end, Nina Canell's ethereal sculpture delineates—even gingerly imagines—the inverse of scientific interconnectivity now presupposed in contemporary social life. The shredded lattice of copper wire (*Attenuate, Attenuate*, 2014), the frayed and eerily finger-like electrical cable (*Brief Syllable (Weak)*, 2015), and the listlessly drifting steel nails held loosely in a magnetic tension (*Thins*, 2015) spark allusions to diverted, or unharnessed, energies: messages and motifs that find no final manifestation, only vibrate along dead ends. Her sculptural form of non-activation, or non-transmission, severs the assumed, inevitable circuit: transfixing notions of loss (psychological, linguistic, electrical) in a non-verbal, still disquietingly (if barely) tangible register. By cleaving the wire from the ground, Canell both undermines and underscores meager material dependencies of twenty-first century interpersonal expression. Air and blood, once temperamentally (thus, symbolically) linked by their essential functions of circulatory exchange and contact, have been technically supplanted by metallurgic plasticity—base matter rendered hygienic if no less neurotic.

보내는 사람: 카리 리텐바흐

날짜: 2015년 5월 26일 10:58:23 PM GMT+02:00

받는 사람: 니나 카넬

참조: 김현진, 전효경

위성이 더욱 널리 사용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해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바늘치 수준의 시야 너머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한때 신호의 진원지를 보고 예상되는 것발의 위치를 염탐해서, 즉 의도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행위자가 일탈적으로 보는 행위로써 수기신호 메시지를 가로채는 것이 가능했었다면, 이와 달리 그 시점에 “혼선”이라든지 전신술에서의 송신자-수신자 진로를 방해하는 다른 사고들에는 분명한 시각적 요소가 결여돼 있었다. 오늘날 인터넷 망의 광섬유 웹, 폴리에틸렌 보호막 원사는 구타페르카 라텍스(gutta-percha latex)를 대체한 것인데, 이는 (다른 위험들 중에서도) 호기심에 찬 상어들이 입을 수 있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 수중 테러리즘이라는 극적인 요소는 전자기계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잘게 다져진 “불완전한” 의의를 모두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니나 카넬의 여러고 신비한 조각은, 이제 현대 사회의 전제가 되는 과학적 상호연결의 정반대를 세밀히 묘사하며 심지어 주의 깊게 상상하기까지 한다. 얇게 조각 난 구리 선 격자 (약해지고 흩어지다, 2014), 닳고 피상한 손가락 모양을 한 전기 케이블 (간결한 음절(강렬한), 2015), 그리고 자기장에 느슨히 매달려 무기력하게 표류하는 강철 못, (가는 것들, 2015) 등에서는 우회하거나 고삐가 풀린 에너지에 대한 암시가 변칙이다. 최종적 발현이랄 게 없는 메시지와 모터프는 막다른 곳을 따라 진동할 뿐이다. 그녀의 비-활동 혹은 비-전송 조각 형식은 예견된, 피할 수 없는 순환을 절단시키며, 비언어적이고 여전히 불안하게(그것도 간신히) 실재하는 장치를 통해 상실(심리적, 언어적, 전기적)의 의미를 굳어버리게 만든다. 카넬은 전선을 땅에서 분리함으로써, 21세기의 대인관계 수식이라는 알파한 물질적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강조한다. 공기와 피라는, 기질적으로(곧 상징적으로) 순환적 교환과 접촉이라는 서로의 필수적 기능으로 연결됐었던 것들은 금속 공학적 가소성으로 대체됐고 기본 물질은 위생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졌다.

